

◀한마음선원 청년불자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장엄 등 채색에 열중하고 있다.

등은 서원이다

"이 등불을 켠 이야말로 은근하고 정중한 마음이 있었다. 그 때문에 등불은 항상 밝았느니라. 설령 나한(羅漢) 사리불(舍利弗) 등과 벽지불이 신통변화의 공덕으로 함께 끈다 하여도 이 등불은 끌 수 없을 것이며, 금시왕(金翅王)에게 큰 바닷물을 치게 하고, 사자왕(師子王)이 크게 울부짖으면서 뛰어올라 함께 끄려 하여도 이 등불은 끌 수 없을 것이니라."

–〈빈녀난타경(貧女難陀經)〉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올해도 어김없이 연등을 밝힌다.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며,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때론 로또 당첨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소망도 이때만큼은 부처님께서 다 섭수해주실 거라는 어리광과 함께 담아본다.

그래서 등은 서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서원을 담아 피안으로 건너가길 바라는 반야용선이다. 서원 없이 등을 밝히는 이는 없다. 하다못해 정월대보름날 부럼을 깨물며 하는 "내 더위 사라"는 말처럼 나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길 바란다.

무명을 밝히는 지혜광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서원을 담아내는 등도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모양의 등을 만들지 몇날며칠을 고민하고, 투박한 손으로 골조를 짜고, 주름을 말거나 풀칠을 하고, 채색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삼매고 수행이다. 시대의 변화로 연등 뼈대가 싸리나무·대나무에서 금속으로 바뀌었고, 기름등잔·초가 전구로 교체됐지만, 연등에 담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568년째 되는 오늘, 우리는 무슨 등을 밝히며 어떤 서원을 담아냈을까. 저마다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각양각색의 등에서 나와 가족, 이웃의 행복을 서원하는 정성어린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글 · 사진=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